

소상공인 실시간 소통판매 공간 조성

전주시, 라이브커머스 방송 위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중 3월 개관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시간 소통 판매(디지털커머스)를 돕는 전문기관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 이하 진흥원)은 팔복동 옛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덕진구 서귀로 107) 건물을 리모델링해 소상공인의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5개소)와 녹음실, 편집실, 교육장 등을 갖춘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와 진흥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상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실시하는 디지털커머스전문기관 구축·운영사업 공모에 선정, 오는 2025년까지 총 5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은 오는 3월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시는 디지털 장비 운용과 방송에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이곳이 전북을 대표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 소상공인과 전문 쇼호스트, 라이브방송 제작기업 등이 함께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서비스와 함께, 온라인 판매 지원 콘텐츠 제작 활동도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현장을 찾아 시설물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현장을 찾아 시설물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현성 중소기업유통센터 본부장과 향후 전문기관 운영을 전담할 진흥원의 이영로 원장이 함께 했다.

시와 진흥원은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상품 온라인 MD컨설팅 및 콘텐츠 제작지원과 상품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전주지역만의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디지털커머스 방송에 생소한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돕고

직접 라이브커머스까지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교육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에도 힘 쓸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실시간 소통 판매(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과 연계수요가 없는 전주형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제회복과 디지털전환 역량 강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6억1100만원 부과

전주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6만4000건에 총 26억1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통신판매업 증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면허 신설 및 신규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1월 대비 1억4700만 원(6%↑)이 증액됐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6만1750원)부터 제5종(1만18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대표적인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있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3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이 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강제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시는 지역 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국제정 사업장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해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구축하고 누락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잊지말고 납부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확대 운영

전주시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휠체어를 타지 않지만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임차택시 대수를 늘렸다.

시는 올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기존 16대에서 20대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 관계로 장애인과 임산부 등 이용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063-271-2727)에 이용자로 사전 등록한 뒤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063-227-0002)로 배차 신청하면 된다. 운행요금은 기본 2km까지 700원이며 시내는 1km당 100원, 시외는 700m당 100원이 추가된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매월 접수

전주시, 상반기 매월 20일까지 상시 접수 지원

전주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한시적으로 접수해 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올해는 매월 접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업체가 전주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용자를 받고 이자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63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건설업·부동산업·보건의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지원 대상은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용자한도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3억 원, 소상공인은 2000만 원까지다. 용자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이다.

시는 일반기업의 경우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업체, 우수 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 3.5%의 대출이자도 보전해줄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매월 20일까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직접 방문하

거나, 우편 또는 공고문에 명시된 E-mail로 제출하면 된다.

용자 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에서 2개월 이내 용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용자로 신청 이전에 대출 신청 은행과 자금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과(063-281-2945)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천년한지관' 막바지 개관 준비 착착

시, 4월 개관 앞두고 시설 점검 집중... 한지 제조공간·체험·전수·전시문화 등 공간 구성

전주한지의 원형보존과 전통한지의 세계화를 이룰 전통한지 생산시설인 전주천년한지관이 올봄 관람객을 맞이한다.

시는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전주한지의 전통방식을 지키고 우수성을 재현하기 위해 조성한 전주천년한지관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시설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주천년한지관은 과거 20여 곳의 한지공장이 밀집해 전통한지 제조·생산의 맥을 이어온 흑석골 일원에 국비 등 총 83억 원이 투입돼 지상 2층에 연면적 3763㎡ 규모로 지어졌으며, 전통방식 한지제조공간과 체험공간, 기획전시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오는 4월 시설 개관을 앞두고 현재 초지, 도침, 건조 등 한지 제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제조 도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한지 제조에 쓰였던 유물들을 찾아 전주천년한지관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계획이다.

기획전시실의 경우 '흑석골, 한지로 잇다'라는 주제로 과거의 천년과 앞으로의 천년을 한지로 잇는 전시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관람객들이 한지를 활용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국비 5억 원을 확보해 개관과 동시에 한지 제조 △한지 후계자 양성 △한지 관련 교육 및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전주천년한지관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개관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전주천년한지관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개관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시는 전주한지의 원형보존과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그동안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한지의 원료 다나무 대규모 재배 △전주 한지장 지정 △전주한지 활성화 협약 체결 △바티칸 교황청 소장 고종황제와 바티칸 교황간 친서 복본전달 △투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 △프랑스 국립기록원 고문서 한지복본사업 추진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ICPAL) 보존·보수·복원용지 유효성 인증서 획득 △전주한지 유네

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한지는 바티칸 교황청과 세계 3대 박물관인 프랑스 투브르박물관, 이탈리아 지류전문기관 등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면서 "전주한지의 완벽 한 복원과 세계적 한지의 중심점이 될 전주천년한지관 활성화와 더불어 닥나무의 안정적인 생산과 한지장 양성 등에도 힘써 전주한지의 맥을 잇고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